

열차 소화기 난동, 엄정 수사하고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28일 밤에 발생한 공항철도 열차 내 소화기 분사 난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, 유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.
 - 6월 28일(수) 23시 7분경,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운행 하던 공항철도 열차에서 70대(추정) 남성이 객차 내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 해서 객차 안 승객 30여명이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는 피해가 발생했다.
- 철도경찰은 사건 직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출입구를 통해 도주한 용의자를 포착하고 역 및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, 아울러 승차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.
 - 철도경찰은 본 사건에 **재물손괴**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, **인적피해**가 접수될 경우 **특수폭행**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.
 - * (형법 제366조, 재물손괴)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 - * (형법 제261조, 특수폭행)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- 국토교통부 정책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“대중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하는 열차에서 일어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되므로, 철도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송재영 (044-201-4617)